

[TV]

TV 11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각계 엇갈린 반응

시민단체 "원칙적으로 동의, 시기·방법 부적절"
KBS "대국민 약속과 함께 설득에 나서겠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는 찬반 양측의 시각 차가 워낙 크고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오랜 시간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도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수신료 인상을 더 미룰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선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수신료 인상은 동의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은 점진적인 사안"이라며 시청자에게 인상이 필요하다는 면이 뒤처져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원내 1당인 한나라당도 반대 입장이다.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9일 'KBS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경계한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KBS 수신료 인상 움직임은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편향, 불공정 보도, 방한한 경영, 극도의 상업화, 자사 이익주의 등 많은 문제를 덮어두고 단지 디지털방송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륜드라마 시청자 등급 19세로 조정을"

'미디어세상...', 지상파 3사 드라마 분석

TV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한다면 육체관계에 대한 묘사 수위와 관계없이 '19세 이상 시청자' 등급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의 불륜 소재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자 등급이 어의할 만큼 표현과 노출의 정도가 심하고 불륜 당사자의 당연해진 발언권, 여성만을 불륜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삼는 것 등 일반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4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KBS 2TV 주말드라마 '행복한 여자', MBC 일일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 SBS 월화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은 "세 드라마 모두 제목에 '여자'를 전면에서



내걸고 있다"며 "불륜을 양측 여성만의 문제로 보이도록 과도하게 측면이 있으며 외도 주체자인 남편의 주장은 정당해지고 이렇다 할 피해도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 남자의 여자"는 불륜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고 육체적 끌림이 불륜의 중요한 이유라고 주인공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다"면서 "육체관계 암시가 적지 않으며 노출의 이상 등을 감안해 불륜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woman and a hearing aid device. Includes text about 25 years of experience and 30% discount on repairs.

케이블·위성TV 11월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YTN, MBN, KTV, SBS, MBC, OCN,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month of November.

Advertisement for 'KPB' (Korea Public Broadcasti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rogram details.

Advertisement for 'TBN' (Taejeon Broadcasting Network)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rogram details.

Advertisement for 'BBS'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rogram details.